

전남

광양항·목포신항 물동량 역대 최고 기록 세운다

올 목표 광양 86.2%·목포 85.6% 달성

수출 증가 등 영향 작년보다 큰 폭 늘어

우리나라 2대 항만중 하나인 광양항과 전남의 대표 수출항인 목포신항의 물동량 처리 실적이 동반 상승세를 보이며 개항 이래 역대 연간 최고 물동량 실적을 돌파할 것으로 기대된다.

10월 수출입화물(15만1000TEU)과 환적화물(2만6000TEU)은 전월보다 각각 11%, 16.7% 증가해 매월 꾸준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동해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올해 목표달성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이처럼 물동량이 증가한 것은 세계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고 있는데 전남도와 해당 기초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등이 지속적인 항만 홍보 및 물동량 유치에 힘쓴 덕이다.

이인근 전남도 해양수산환경국장은 "광양항, 목포신항을 조속히 활성화하기 위해 유관기관 등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국내외 물류기업 유치를 위한 수요자 중심의 항만기능 전환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철희기자 chou@kwangju.co.kr



"국화차에 쓸 꽃잎 따입니다"

10일 강진군 성전면 월남마을 아낙네들이 마을 뒷산 장원산업 국화밭에서 국화차를 만들기 위해 꽃잎을 따고 있다.

남철희기자 chou@kwangju.co.kr

UN이 뽑은 살기 좋은 도시 '순천'

'리브컴 어워즈' 은상 수상... 생태도시 높게 평가

순천시가 유엔환경계획(UNEP)에서 인정하는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선정됐다.

10일 순천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8일(현지시간)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2010 리브컴 어워즈(LivCom Awards)'에서 미국 리버사이드, 덴마크 오덴세 등 세계적인 도시들을 제치고 은상을 수상했다.

세계적인 석학자 등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번 시상식에서 순천시는 대한민국 대표로

출전해 본선에서 동청지구(중국), 이바노프라코프스키(우크라이나), 마이애미비치(미국), 오덴세이(덴마크), 리버사이드(미국), 텔러헤시(미국) 등 6개 도시와 경합을 벌였다.

시는 세계 5대 연안습지 순천만을 보전하고 복원해 자연 친화적인 도시를 만들었고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유치했다는 점에 높은 평가를 받아 은상을 차지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이라는 전락은 세계에서도 통했다"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한국의 국가 브랜드 강화뿐만 아니라 순천시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도시로 발전하는 계기

가 됐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리브컴 어워즈는 지구환경보호에 기여하고 살기좋은 지역사회를 건설한 도시를 선정하기 위해 유엔환경계획이 1997년 만들었다.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순천만에 황새가 돌아왔다

1996·2003년 이후 세번째

순천만에 세계적 희귀조류인 황새가 7년 만에 나타났다.

순천시에 따르면 10일 오후 3시 30분께 순천만 농경지에서 겨울의 진객 황새가 먹이를 먹는 모습이 목격됐다.

국내 텃새로는 이미 멸종된 것으로 알려진 천연기념물 199호 황새가 순천만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지난 1996년, 2003년 이후 이번이 세번째다.

황새는 1m 정도의 비교적 큰 몸집에 검은 부리와 날개 깃, 부드러운 곡선의 우아한 자태가 돋보이는 대형 조류로 세계적으로 2천500여 마리밖에 없어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 멸종 위기 종으로 보호받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두 마리가 발견되는데 그치고 있어 이번 순천만에서 발견된 황새의 경우 월동 가능성 여부가 주목된다.

천연기념물 228호 흑두루미 300여 마리가 월동하는 순천만은 해마다 20~30여 종의 천연기념물과 국제보호 조류가 목격되는 등 국내의 대표적 철새도래지로 유명하다.

순천만에 세계적 희귀조류인 황새가 7년 만에 나타났다.

순천시에 따르면 10일 오후 3시 30분께 순천만 농경지에서 겨울의 진객 황새가 먹이를 먹는 모습이 목격됐다.

국내 텃새로는 이미 멸종된 것으로 알려진 천연기념물 199호 황새가 순천만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지난 1996년, 2003년 이후 이번이 세번째다.

황새는 1m 정도의 비교적 큰 몸집에 검은 부리와 날개 깃, 부드러운 곡선의 우아한 자태가 돋보이는 대형 조류로 세계적으로 2천500여 마리밖에 없어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 멸종 위기 종으로 보호받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두 마리가 발견되는데 그치고 있어 이번 순천만에서 발견된 황새의 경우 월동 가능성 여부가 주목된다.

천연기념물 228호 흑두루미 300여 마리가 월동하는 순천만은 해마다 20~30여 종의 천연기념물과 국제보호 조류가 목격되는 등 국내의 대표적 철새도래지로 유명하다.

순천만에 세계적 희귀조류인 황새가 7년 만에 나타났다.

순천시에 따르면 10일 오후 3시 30분께 순천만 농경지에서 겨울의 진객 황새가 먹이를 먹는 모습이 목격됐다.

국내 텃새로는 이미 멸종된 것으로 알려진 천연기념물 199호 황새가 순천만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지난 1996년, 2003년 이후 이번이 세번째다.

황새는 1m 정도의 비교적 큰 몸집에 검은 부리와 날개 깃, 부드러운 곡선의 우아한 자태가 돋보이는 대형 조류로 세계적으로 2천500여 마리밖에 없어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 멸종 위기 종으로 보호받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두 마리가 발견되는데 그치고 있어 이번 순천만에서 발견된 황새의 경우 월동 가능성 여부가 주목된다.

천연기념물 228호 흑두루미 300여 마리가 월동하는 순천만은 해마다 20~30여 종의 천연기념물과 국제보호 조류가 목격되는 등 국내의 대표적 철새도래지로 유명하다.

순천만에 세계적 희귀조류인 황새가 7년 만에 나타났다.

순천시에 따르면 10일 오후 3시 30분께 순천만 농경지에서 겨울의 진객 황새가 먹이를 먹는 모습이 목격됐다.

국내 텃새로는 이미 멸종된 것으로 알려진 천연기념물 199호 황새가 순천만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지난 1996년, 2003년 이후 이번이 세번째다.

황새는 1m 정도의 비교적 큰 몸집에 검은 부리와 날개 깃, 부드러운 곡선의 우아한 자태가 돋보이는 대형 조류로 세계적으로 2천500여 마리밖에 없어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 멸종 위기 종으로 보호받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두 마리가 발견되는데 그치고 있어 이번 순천만에서 발견된 황새의 경우 월동 가능성 여부가 주목된다.



김인국수배 국제시니어바둑대회

일본·호주 등 7개국 참가 성료

양경선·염동인 우승

제4회 김인국수배 국제 시니어 바둑대회가 지난 5일부터 4일간 강진군 국민체육센터에서 국내·외에서 250여명의 시니어 바둑 강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대회에는 특히 일본·중국·호주 등 7개국에서 70여명의 외국선수들이 참가해 국제대회로서의 위상을 높였다.

개진전에서는 양경선, 염동인(62·

한국기원과 사단법인 대한바둑협회 주관으로 열린 행사는 남자단체전(4인), 여자단체전(4인), 개인전(초단~5단) 부문으로 진행됐다.

남자 단체전은 국수산맥팀(양현모·박성균·박강수·신영철)이 우승을 차지해 청자트로피와 300만원의 상금을 받았다.

여자단체전에서는 서울 2팀(정영재·유경자·김미경·김말순)이 우승을 차지해 청자트로피와 150만원의 상금을 받았다.

개인전에서는 양경선, 염동인(62·

보성군)씨가 우승을 차지해 청자트로피와 상금 100만원을 수상했고 참가자 전원에게 강진청자 돌멩이 기념품도 증정됐다.

김인 국수(9단)는 "국적을 초월해 같은 시대를 살아온 바둑인들이 정겨운 만남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했다"고 밝혔다.

양경선·염동인 우승 한국기원과 사단법인 대한바둑협회 주관으로 열린 행사는 남자단체전(4인), 여자단체전(4인), 개인전(초단~5단) 부문으로 진행됐다.

남자 단체전은 국수산맥팀(양현모·박성균·박강수·신영철)이 우승을 차지해 청자트로피와 300만원의 상금을 받았다.

여자단체전에서는 서울 2팀(정영재·유경자·김미경·김말순)이 우승을 차지해 청자트로피와 150만원의 상금을 받았다.

개진전에서는 양경선, 염동인(62·

보성군)씨가 우승을 차지해 청자트로피와 상금 100만원을 수상했고 참가자 전원에게 강진청자 돌멩이 기념품도 증정됐다.

김인 국수(9단)는 "국적을 초월해 같은 시대를 살아온 바둑인들이 정겨운 만남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했다"고 밝혔다.

양경선·염동인 우승 한국기원과 사단법인 대한바둑협회 주관으로 열린 행사는 남자단체전(4인), 여자단체전(4인), 개인전(초단~5단) 부문으로 진행됐다.

남자 단체전은 국수산맥팀(양현모·박성균·박강수·신영철)이 우승을 차지해 청자트로피와 300만원의 상금을 받았다.

여자단체전에서는 서울 2팀(정영재·유경자·김미경·김말순)이 우승을 차지해 청자트로피와 150만원의 상금을 받았다.

화순 블루베리연합 출범... 소득증대·활로개척

화순군 블루베리연합회는 11일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에서 블루베리 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농업 활로 개척을 위해 연합회 출범식을 갖는다.

블루베리는 화순군 이양면읍 중심으로 7ha가 재배되고 있으며 작거리의 경우 kg당 3만~5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을 전국 제일의 블루베리 주산지로서 육성할 계획이다.

양동욱 연합회장은 "올해 블루베리는 유통 활성화에 힘입어 판매량이 늘고 가격도 높게 형성됐다"며 "과잉 생산에 대비해 가공 및 산업화와 유통시설 등 기반구축, 농가 재배기술 향상, 마케팅 등에 힘쓸 것이다"고 말했다.

화순군은 블루베리연합회를 통해 재배농가 소득증대를 꾀하고 화순군

복돼지부동산

광주 최고의 프리미엄 아파트 급매

현대 "힐스테이트" 전망 좋은 옥탑 방 급매 (192㎡ 58py)

총 분양가 5억 6천 136만

문의 062-364-1613

대인동상일부동산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이동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사장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해 내 놓으시면 저희 부동산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일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FAX) 223-1772

태영부동산 재테크컨설팅

호남경매전문지사, 매수신청대리업체(법원인가)

다가구주택 • 동구 계림동 대지 100평 건물 224평 1층상가 2~3층 다가구 4억5천만

근린시설 • 동구 공동 대지 71평 건물 310평 3억 5천만

전원주택 • 광산구 삼기동 대지 245평 건물 91평 전망좋은 투자적합 7천 3백만

과수원 • 나주시 부덕동 952평 배나무 식재 자연녹지 4천5백만

T. 010-4911-4989 FAX. 062-376-6611

토지 매매

위치 : 나주시 노안면 오정리

- 대지 : 4,000평
• 건물 : 650평
• 전 : 9,500평
• 합계 : 13,500평
• 매매가 : 협의 후 결정

광주 ~ 무안 고속도로(나주 I.C 입구)

광주에서 8분거리

길잡이공인중개사

문의 011-620-3960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Asset Korea, featuring a table of property listings with columns for location, area, price, and contact information. Includes a section for '경매에 관한 모든 상담' and '부동산경매 전문회사'.